

## 김동리의 소설에 나타난 전통종교와 외래종교

이승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있는 이승하라고 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소설을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가? 좀 이상하지요? 제가 김수영문학관의 의뢰를 받고 선뜻 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김동리 선생님(1913~1995)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김동리는 애당초 시로 등단했습니다. 1929년에 매일신보에 시 <고독>을, 중외일보에 시 <방랑의 우수>를 발표했고 1933년에는 전 5막의 극시 <연당>을 탈고했지만 발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실했다고 합니다.

정식 등단은 1934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이었고 제목이 '백로'였습니다. 다음해인 1935년에 조선중앙일보에 소설 <화랑의 후예>가 당선되었고 그 다음해인 1936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에 <산화>가 당선되었습니다. 즉, 3년 연속 신춘문에 당선된 것은 우리 문학사에서 김동리가 유일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동리의 단편소설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녀도>와 <역마>와 <밀다원 시대>와 <등신불>과 <까치소리>입니다. 저는 이 다섯 작품 중 특히 <등신불>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나갈까 합니다.

<무녀도>는 1936년에 『중앙』이란 잡지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경주읍에서 5리쯤 떨어진 마을에 무당 모화와 그림을 잘 그리는 그녀의 딸 낭이가 살고 있습니다. 열일곱 살 먹은 낭이는 어릴 때 병을 앓아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모화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아들 옥이가 있었는데 절에 보내고 나서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열아홉 살이 된 옥이가 이 집에 찾아오는데 그는 절에서 나와 돌아다니다 목사님이 거둬 주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굿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대립합니다. 마침 병에 걸린 옥이를 굿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들린 모화가 신칼로 아들을 찌르게 되고 그 상처가 병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 옥이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있는 뒤에 읍내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못에 빠져 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그 넋을 달래고자 큰 굿을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모화는 그만 물에 빠져 죽습니다. 낭이의 아버지가 나타나 낭이를 당나귀에 태우고 떠돌면서 딸의 그림을 팔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 전통종교인 무속과 외래종교인 기독교와의 대립으로 흔히 평가가 되는 소설입니다. 무속이 섬기는 신은 온갖 자연물과 죽은 이의 혼령이고 기독교의 신은 유일신인 하나님입니다. 불교는 3국시대에 전래되어 포교하는 과정에서 절에 삼신각도

세우고 염불하며 복을 빌고 죽은 이를 위해 49제를 지내는 등 전통종교와 혼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당을 악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범신론인 무속에서는 기독교의 유일신사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접합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옥이도 죽고 모화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전래 초기에는 사실상 전통종교나 전통문화와 강하게 대립했는데 지금은 천주교와 기독교도 촛불을 사서 켜고 대학입시나 취직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안수기도도 그렇고 기복신앙이 꽤 들어와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20년대나 3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통종교와 외래종교가 원수처럼 반목하였고, 김동리는 이것을 다룬 것입니다. 이 주제는 1978년에 『올화』라는 장편소설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무속의 세계를 더욱 세밀하게 다루어 현세를 중시하는 무속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인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아주 심층적으로 다뤄 김동리 소설의 정점이 됩니다.

<역마>는 1948년에 『백민』이란 잡지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역마>에는 화개장터에서 성기라는 아들을 데리고 주막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마음씨 착하고 인심 좋은 옥화가 나옵니다. 성기는 집에 잘 있지 않고 어디 훌쩍 다가가기를 좋아합니다. 역마살이 있는 거지요.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와 옥화네 주막에 맡기고 떠납니다. 옥화는 계연을 성기와 맺어 주어 성기가 정착하기를 바라죠. 그러던 어느 날,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어릴 때 헤어진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에 의해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임이 밝혀지고, 혈연지간인 계연과 성기는 헤어지게 됩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성기는 계연을 이모라고 불러야 하겠지요. 계연은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떠나고 성기는 병을 앓습니다. 이후 성기는 옛장수가 되어 화개장터를 떠납니다.

이 작품은 '역마살'을 소재로 하여 운명에 의해 상처받고 좌절하면서도 그에 순응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성기의 역마살은 외할아버지인 체 장수 영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체 장수의 외손자인 성기와 체 장수의 딸인 계연의 결합은 불가능해집니다. 성기는 사랑하는 계연과 정착하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죽음과 유랑의 길 중 어느 하나만을 강요합니다. 운명을 거역하면 죽는 것이고 순응하면 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작가의 운명론 혹은 숙명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밀다원 시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에 『현대문학』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중구는 1951년 1·4 후퇴 때 홀홀단신 부산으로 피란을 옵니다. 이중구는 부산이라는 낯선 도시가 두렵고, 가족들을 건사하지 못한 채 자신만 피란을 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중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 문인들을 '밀다원'이라는 다방에서 만납니다. 이곳에 모여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거죠.

중구는 밀다원에서 동료 조현식을 만나 조현식의 가족이 거처하는 임시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부산 사람인 소설가 오정수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구는 자신이 편안한 숙소를 제공받을 때마다 서울에서 모시고 내려오지 못한

어머니와 피란길을 함께하지 못한 아내와 딸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지내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밀다원에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밀어닥치고 있어 부산에서도 제주도로 피란을 가야 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시인 박운삼은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합니다. 이 일로 밀다원은 문을 닫게 되고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 서로를 보살피고 삶을 이어 가며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기록합니다.

이 소설은 김동리가 부산에서 피란 생활을 하는 동안 겪었던 일들을 거의 실제에 가깝게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실제 문인들이나 예술인들의 이름을 조금씩 변형한 것입니다. 주인공 이중구는 소설가 자신이나 이봉구를, 조현식은 평론가 조연현을, 오정수는 소설가 오영수를, 길섹득은 소설가 김말봉을, 박운삼은 전봉래를 모델로 했습니다. 전봉래는 부산에 피난을 가서 자살한 시인입니다. 밀다원 역시 당시 부산의 광복동에 실존하던 다방의 이름입니다. 때문에 『밀다원 시대』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문인들의 고뇌와 불안은 거의 사실입니다.

이 소설에도 작가의 운명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고 서울에서 살던 문인들이 우르르 부산에 피난을 가서 산다는 것도 운명입니다. 그저 그 운명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박운삼 같은 이는 자살을 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서밖에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지식인들의 일그러진 초상을 그는 그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1961년에 『사상계』에 발표한 <등신불>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1938년이었습니다. 부산 해인사의 말사인 다술사의 주지인 금봉스님(최범술)은 스님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절에 사람을 목게 하면서 고담준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마침 시인 한용운이 왔습니다. 김동리의 형 김범부와 세 사람이 며칠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 무렵 김동리는 사천군 곤명면의 원전이란 곳에서 '광명학원'이라는 팻말을 깨끗한 한옥에 붙이고 사설강습소를 열어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술사에서 불목하니까 와서 기별을 했습니다. 한용운 스님이 서울에서 왔으니 다술사로 와서 저녁공양을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동리는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자리에 끼어 소신공양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은 김동리의 수필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용운이 김범부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범부, 중국 고승전(高僧傳)에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이니 분신공양(焚身供養)이니 하는 기록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 했습니다. 김범부가 학식이 많으니까 어느 문헌에라도 나오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김범부가 "글쎄요, 형님이 못 보셨다면야....." 하고 자기도 읽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다술사의 주지인 금봉스님이 이렇게 대답

하지요. “옛날 스님들이 참선을 해도 뜻대로 도통이 안 되고 하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불태워서 부처님께 재물로 바치는 거라. 성불할라고 말이다.” 이 말을 듣고 김동리가 불속으로 뛰어드느냐고 묻자 금봉스님은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앉아야지, 머리 위에 불덩어리 든 향로나 그런 걸 갖다 씌워야지.”라고 답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동리는 어떻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충격을 받고 바깥으로 뛰쳐나옵니다.

나는 더 물을 힘이 나지 않았다. 별장계 단 향로 따위를 머리에 쓴다고 생각하니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 뜨거움을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곧 고꾸라지지 않고 앉은 자세를 유지해낼까..... 나는 아래턱이 달달달 떨어져 건딜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다.

23년 동안 이 이야기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4.19와 5.16을 겪고 나서 비로소 소설로 쓸 작정을 하고 쓴 것이 바로 <등신불>입니다.

이 소설에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인 소신공양과 등신불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고승전』 등 중국의 이런저런 기록에 소신공양이 나온다고 했으므로 실지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분신자살은 온몸을 태우므로 뼈와 재밖에 남지 않기도 하지만 그 자세가 결가부좌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등신불은 완전히 타버린 것이 아니어서 법당의 불상처럼 그 모양을 불상 비슷하게 만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지에 등신불을 모신 전각이 있으므로 ‘소신’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아주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불경 중 하나인 『묘법연화경』의 「약왕보살 본사품」을 보면 약왕보살이 향유를 몸에 바르고 자기 몸을 불살랐다는 대목이 나온다. 경전의 저자는 이를 찬양하여, “이것은 참다운 법으로서 여래를 공양하는 길이다. 이것이 제일의 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대에 자살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신불’은 종교상의 비원의 의미로 분신을 한 결과이되 스스로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는 분신자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름을 몸에다 붓고 불을 붙여줌으로써 참선의 극한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1963년에 베트남에서는 틱광득[釋廣德]이라는 스님이 백주대로에서 디엠 정권의 불교 탄압과 미국의 북베트남 공격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거센 화염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가부좌를 유지했던 그의 모습은 무력으로 얼마든지 힘없는 동양을 농단할 수 있다고 여겼던 서양세계를 전율케 했습니다. 혹자는 ‘미국 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는 이 순간에 결정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스님 중 ‘문수(文殊)’라는 분이 소신공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4대강 개발에 반대하여 유서를 써놓고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두 경우는 모두 정치적인 의도로 분신한 것이었습니다. 티베트에서도 스님들이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기원하며 종종 분신을 하는데, 모두 정치적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몸에 기름을 끼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에 나오는, 인간 구원을 위한 소신공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불교는 종교로 보기 어렵습니다. 절대자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써 신앙행위가 이루어지는 기독교나 마호메트교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하지만 불교는 철저하게 본인의 정진과 타인에 대한 보시를 통해 해탈하고 성불하는데 주안점을 둔 자력쟁생의 신앙입니다. 신앙이지만 종교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김동리는 20여 년 전에 한용운의 입을 통해 처음 들은 '소신공양'을 소재로 소설을 쓰기로 23년 만에 마음먹는데, 액자구조를 취합니다. 현세의 고통과 아주 오래 전의 고통을 다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소설의 화자인 '나'는 스물세 살 때인 1943년, 일본의 대정대학 재학 중에 학병으로 중국 남경의 전장으로 끌려갑니다. 일본을 위해 죽기는 싫어 탈출을 결심하고 대정대학에 유학한 바 있는 중국인 불교학자인 진기수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진기수라는 사람에게 나는 생면부지인데다 일본군의 옷을 입은 한국인이어서 나를 믿지 않자(밀정일수도 있으므로), 나는 오른손 식지를 깨물어 '원면살생(願免殺生) 귀의불은(歸依佛恩)'이라는 혈서를 써 올립니다. 결국 그의 도움으로 정원사에 도착하여 원혜대사를 배알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수업을 하는 도중, 금불각을 발견하고 불상 역시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금불각 안에 있는 등신불을 대하고는 큰 충격을 받고 전율합니다. 등신불은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결가부좌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젊은 승려인 청운의 이야기와 당나라 때의 이야기라는 「만적선사 소신성불기」를 읽고 나는 만적의 생애를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의 실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만적인 것이죠.

만적(속명은 기)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머니 장씨는 사구라는 이에게 개가 하여 사구의 외아들 신과 같이 삽니다. 기와 신은 같은 또래인데, 어머니가 신에게 돌아갈 재산을 아깝게 여겨 신의 밥에 독약을 넣습니다. 우연히 그것을 엿본 기는 그 밥을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보고 기겁을 하지요. 며칠 뒤에 신이 집을 떠나 자취를 감추고, 기도 어머니의 사악함에 환멸을 느껴 가출하여 중이 됩니다. 만적은 법림원의 취뢰스님의 상좌로 불법을 배우다가 열여덟에 취뢰스님이 열반하자 은공을 갚고자, 또 세속의 연들을 다 끊고자 소신공양할 의사를 비춥니다. 그러나 운봉선사가 만류합니다. 만적은 운봉선사의 알선으로 혜각선사를 만나 그 밑에서 도를 닦습니다. 만적은 스물세 살 되던 해 겨울에 금릉에 갔다가 10년 만에 문둥병에 걸린 이복형제 신을 만납니다. 만적은 신의 목에 염주를 걸어주고 절로 돌아와 소신공양을 결심하고는 火食을 끊고 이듬해 봄까지 하루에 깨 한 접시만 먹으면서 몸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듬해 봄 법사스님과 공양주 스님만을 모시고 취단식을 하고 한 달 뒤에 소신공양을 합니다. 소설의 클라이맥스를 김동리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적의 머리 위에 화관같이 씌워진 향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오랜 동안의 정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만적의 육신이지만, 불기운의 그의 숨골(정수리)을 뚫었을 때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고개와 등가슴이 조금씩 안으로 숙여져 갔다.

만적이 몸을 태우던 날 육신이 연기로 화해 갈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으나 단 위에는

내리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머리 뒤에는 보름달 같은 원광이 씩뿔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비스런 일이 있자 모인 사람들은 불을 입어 모두 제 몸의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사재를 던져 새전이 쌓이게 되죠. 모인 새전으로 만적이 탄 몸에 금을 입히고 금불각에 모시는데 이런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지는 설화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원혜대사는 나에게 남경에서 진기수 씨에게 혈서를 바치느라 입으로 살을 깨물었던 오른손 식지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왜 그 손가락을 들어보라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대사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북소리와 묵어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의 근본은 고(苦)와 업(業)에 관한 것입니다. 만적의 친어머니가 의붓아들인 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기와 신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재물욕이 살인을 할 결심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사실은 둘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기는 자신의 어머니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 집을 떠나고 기도 집을 떠나 스님 만적이 됩니다. 훗날 이복형제가 조우했을 때 형제간의 우애를 갖고 있던 둘은 스님과 문둥병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현실을 가슴아파한 만적은 사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업의 소멸을 꾀하는 것이 이 소설의 대미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설화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부처상은 별다른 염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만적의 등신불은 극한의 고통이 응축된 것이라 그 앞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의 병이 낫는다고 하죠. 즉, 예수는 살아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만적은 사후에 관음보살처럼 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합니다.

김동리가 이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타인에 대한 연민의 정, 혹은 보시행위가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실천에의 의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장면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원혜대사의 선문답과도 같은 질문, “자네 바른손 식지를 들어보게.”는 만적의 소신행위와 ‘나’의 식지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동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생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치열성입니다. 스스로 택한 죽음이 역설적으로 생에 대한 치열함을 말해주기에 「등신불」은 위대한 불교소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괴로움이 참 많다고 생각하여 싯다르타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정근 정진하여 붓다가 됩니다. 제자들 앞에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생자 필멸하니 정근·정진하라”였습니다.

삶의 비극성에 대한 인식은 김동리로 하여금 뛰어난 불교소설을 쓰게 했습니다. 불교는 초월적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근·정진하여 붓다의 길을 가는 것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구하려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던 것이고 만적은 소신공양 후 등신불이 됨으로써 남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도를 닦고 남을 구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불교의 본질인데 만적이 그것을 몸소 행했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면벽참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바세계에서 몸소 실천하는 생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임을 김동리는 「등신불」에서 말해주었습니다.

<까치소리>는 1966년에 『현대문학』에 발표했습니다. <까치소리>의 나는 서점에서

『나의 생명을 물려다오』란 책을 구입하는데 '살인자의 수기'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소식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천식 증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날 때마다 까치가 사납게 읊니다. 한편, 전쟁터에 나갔던 '나'(봉수)는 정순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식지와 장지에 자해를 가하여 제대를 하고 귀향합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왔을 때, 유일한 희망이었던 정순은 '내'가 전사했다는 상호의 거짓말에 속아 상호와 결혼한 뒤였습니다. 나는 정순의 오빠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알고자 하나 아무런 소득 없이 헤어집니다. 주막 앞에서 상호를 만나게 되고 그와 담판을 짓지만, 정순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상호의 동생인 영숙이를 통해 '나'의 뜻을 정순에게 보내지만 시간만 흐를 뿐이다. 하루는 그녀를 만나 '내' 목숨의 의미를 설명하며 용기를 다하여 재결합을 설득하지만 끝내 좌절하고, '나'의 절망과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나'를 연모해 오던 영숙은 오빠 상호의 행위에 죄의식을 느끼고, '나'의 고통을 위로하다가 몸을 허락합니다. 이때 까치가 읊니다. 어머니가 가장 모진 기침을 터뜨릴 때 울던 바로 그 저녁 까치 소리였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면서 영숙을 목 졸라 죽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운명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봉수는 자해행위를 통해 전장에서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애인과의 결합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곳이 전장입니다. 이곳에서 탈출하여 적을 안 죽여도 되고 자신도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두지 않습니다. 결국 까치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하여 원수가 된 친구 상호의 누이동생 영숙이를 죽입니다. 인간은 운명의 수레바퀴에 들어가면 그 실존적 상황을 헤치고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죽 살펴본 바 김동리의 소설은 아무리 인간이 날고뛰어도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주제로 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연기설과 인연설에 가깝고 기독교의 예정조화설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김동리의 장편소설 중 대표작을 2개 꼽으라고 하면 『을화』와 『사반의 십자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무속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았고 후자는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았다는 점에서 종교소설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무게 있는 소설을 쓴 이가 바로 김동리였습니다.